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25. Vol. 36. No. 4 pp. 5~32.
eISSN 2288-8799
https://doi.org/10.14816/sky.2025.36.4.5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궤적과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김지형* · 윤현정**

▌알기 쉬운 개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적응과 행복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16명을 추적한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교사 지지는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또래의 정서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때, 청소년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jhkim2024@cbnu.ac.kr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교신저자,
openjeong@hanmail.net

투 고 일 / 2025. 6. 8.
심 사 일 / 2025. 8. 11.
심사완료일 / 2025. 8. 23.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만족도 궤적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토하고, 이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다. 자료는 2014년(중학교 1학년)부터 2016년(중학교 3학년)까지 수집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3개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표본은 1,316명(남학생 648명, 여학생 668명)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그 출처에 따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의 변화 궤적 추정을 위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Mplus 8.3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초기 수준과 변화율 모두에서 개인차가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중학교 시기 동안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개인 간에 상이한 적응 경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중 가족 및 친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완화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을 높이는 중요 기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교사지지는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에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 또래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원을 구분하고, 종단적 매개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심리적 완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 기능 강화 및 또래 활성화 지원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

Ⅰ. 서 론

최근 국내 이주배경 인구의 꾸준한 증가하면서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과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인구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 인구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어 2042년에는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체 학령인구 중 다문화 청소년의 비중 또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문화교육포털, 2023).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와 그 가족에 속한 청소년을 포함하며(법제처, 2020), 최근 통계에서 다문화 학생 수의 비율은 2023년 3.5%에서 2024년 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수적 증가와 사회적 중요성 확대는 이들의 적응과 발달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사회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자율성 확대, 정체성 형성, 또래 관계의 확장 등 다양한 발달 과제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이 시기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Steinberg & Morris, 2001).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이러한 발달 과업과 더불어 문화 적응이라는 추가적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 문화 간 갈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리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들은 가족 내 문화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감,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적 경험 등으로 인해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한광현, 강상경, 2019; Choi, He & Harachi, 2008),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수, 원성준, 2023; 장선아, 고정훈, 2021). 더 나아가, 문화적 차이와 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즉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최려나, 노충래, 2002),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어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 수준을 의미하며,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학업 몰입, 또래 관계, 미래에 대한 태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될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지표로 기능한다(Otto et al., 2021;

Proctor, Linley & Maltby, 2011; Suldo & Huebner,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진로정체감(김보경, 2017)과 학업성취(유경훈, 2013)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낮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무의미하게 느끼거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고립과 부적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uebner, 2004). 또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은 학교 적응, 대인관계,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지희, 황숙연, 2016; 이응택, 2025).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등 다문화 배경에서 비롯하는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긴장과 압박, 소속감 결여와 정체성 혼란을 의미한다(Berry, 1997).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의 감소(김지혜, 2019), 우울 및 불안 증가(Tineo et al., 2024), 사회적 부적응(김진영, 이유진, 2022) 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종단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우울 및 위축 수준을 높이고(Sirin, Ryce, Gupta & Rogers-Sirin, 2013),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Kim & Lee, 2018).

한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자존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결과를 증진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Cohen & Wills, 1985; Ozbay et al., 2007; Thoits, 2011).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족, 또래,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도구적·정보적 지원을 의미하며(Cobb, 1976), 청소년기에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정적 심리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Wang & Eccles, 2012),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 반응이 낮고, 정신건강이 더 긍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미숙, 2015; 이기숙, 박소영, 2000). 나아가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청소년은 지지를 받을수록 자신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어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Suldo & Huebner, 2004).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은 이주로 인한 환경 체계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청소년 자신도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거리감을 경험하기 쉽다. 즉, 다문화 청소년은 가족의 지지 부족, 또래관계의 불안정, 교사와의 소통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 Lee, 2018; Sung, Lee & Lee, 2018).

반면,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Wang와 Eccles(2012)는 다문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 및 교사의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내적 통제감을 매개로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재경, 강민주, 20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핵심 보호요인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lin, Menaghan, Lieberman and Mullan(1981)이 제안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스트레스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활환경 전반에서 누적되는 긴장과 압력으로 정의되며, 그 결과는 개인이 보유한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도움 형태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스트레스가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시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개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그 출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얻는 자원, 기회, 지지 등을 의미하며(Bourdieu, 1986; Coleman, 1988), 그 특성에 따라 결속형 자본(bonding capital)과 교량형 자본(bridging capital)으로 구분된다(Putnam, 2000). 결속형 자본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강한 유대로, 주로 정서적 안정과 자기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교량형 자본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제도적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원, 정보에 접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Joyce & Liamputtong, 2017; Kawachi, 2006).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볼 때, 학교라는 제도적 환경에서 형성되는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이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원,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량형 자본으로 볼 수 있다.

Raymond-Flesch, Auerswald, McGlone, Comfort and Minnis(2017)은 교사, 상담가, 종교지도자 등 가족이나 또래와 구별되는 성인과의 관계를 청소년의 대표적인 교량형 자본으로 제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단순한 정서적 지지를 넘어, 진학, 진로, 건강 등 구조적 자원과 실질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가정 외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한된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획득하는 데 있어 교사의 교량형 자본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차별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Yoon, Lee and Goh(2008)는 가족 및 친구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반면, 교사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및 교사에 대한 애착은 학교 적응력과 학업 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담이, 2023; 이연숙, 박종효, 2021).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그 출처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차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여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하여 삶의 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와 그 개인차를 분석함으로써, 단일 시점의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며(Lucas & Donnellan, 2007), 특히 청소년기에는 발달 과업, 환경 변화, 정서적 경험 등에 따라 그 궤적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LGM)은 이러한 시간적 변화의 개별 경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삶의 만족도의 초기 수준(initial level)뿐 아니라 변화율(slope) 및 이들에 대한 개인차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중학교-고등학교 전이기에 수반되는 발달적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의 출처를 가족, 또래, 교사로 세분화하여 그 영향력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발달에 있어 어떤 유형의 지지가 보다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연구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족, 또래, 교사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궤적(초기 수준과 변화율) 간의 직접적,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가족, 또래, 교사지지)와 삶의 만족도 궤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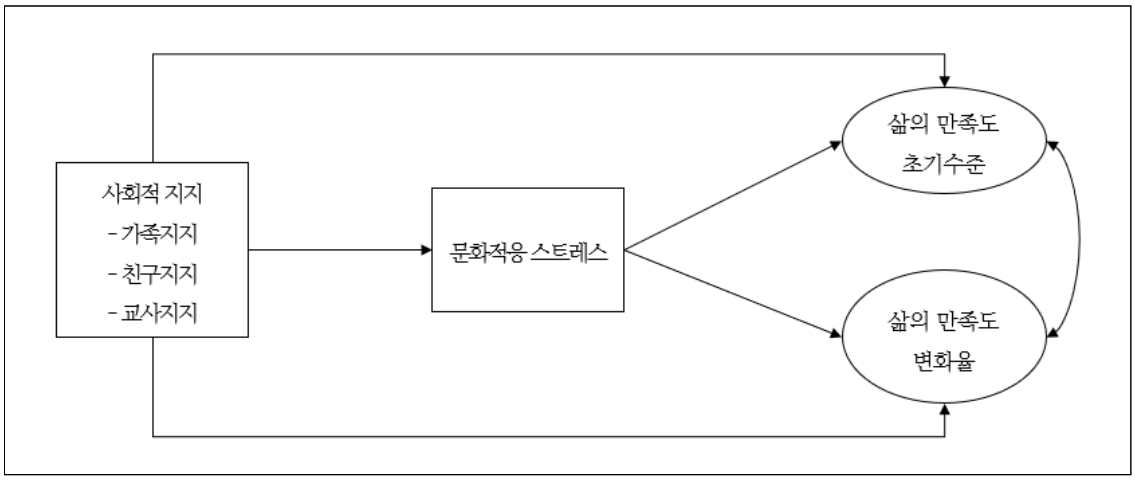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MAPS) 1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MAPS 1기의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모집단 구성 결과,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11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작된 종단자료로, 1년 간격으로 총 9차까지 구축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보다는 중학교 재학 시기에 주목하였다. 중학교 시기는 학업 환경,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 등 주요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로,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4차년도, 2014)부터 중학교 3학년(6차년도, 2016)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삶의 만족도 3개 시점 중 하나라도 결측이 있는 사례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으로 제외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648명(49.2%), 여학생 668명(50.8%), 총 1,316(100.0%)명이다.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MAPS 1기 4차년 ~ 6차년까지 사용한 문항으로 김신영 외(2006)가 개발한 도구를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의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행복감 수준과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사는게 즐겁다.'등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4차년도 .86, 5차년도 .86, 6차년도 .82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MAPS 1기 4차년에 사용한 문항으로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한미현(1996)의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지지','친구지지','교사지지'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지지는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등 7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친구지지는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등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교사지지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등 평소 담임선생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6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가족지지 .95, 친구지지 .97, 교사지지 .96으로 나타났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MAPS 1기 4차년에 사용한 문항으로 Hovey와 King(1996) 개발하고, 노충래(2000)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홍진주(2004)가 10문항으로 수정·축약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적용할 통제변수인 가구소득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김주의, 2023; 김평화, 윤혜미, 2020; 손신영, 2023).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차 시점(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은 "현재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은 얼마입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월평균 소득(세전)은 약 238만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변환 없이 원자료 그대로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 LGM)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차이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 반복 측정된 자료를 활용한 종단 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다(배병렬, 2024).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변인 간 상관관계 실시하였다. 이후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추정하였으며, 세 시점(4차~6차년도)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 및 비선형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적 모형(unconditional model) 을 설정하여 삶의 만족도의 평균 변화 궤적을 추정하고,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기반으로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포함한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독립변수(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은 SPSS 23.0과 Mplus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4차년도(3.22), 5차년도(3.15), 6차년도(3.05)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2미만, 7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의 조건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가구 월평균 소득을 통제한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분석 결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372~.539,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는 모두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32~.527,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72~-.223, p<.001). 한편, 삶의 만족도는 시점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431~.539, p<.001).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부분상관관계 (N=1,316)

구분	1	2	3	4	5	6	7
1. 가족지지 4차	1						
2. 친구지지 4차	.423***	1					
3. 교사지지 4차	.422***	.516***	1				
4. 문화적응 스트레스 4차	-.234***	-.372***	-.223***	1			
5. 삶의만족도 4차	.506***	.527***	.423***	-.302***	1		
6. 삶의만족도 5차	.323***	.310***	.239***	-.219***	.484***	1	
7. 삶의만족도 6차	.300***	.291***	.232***	-.181***	.431***	.539***	1
평균	3.20	4.12	3.76	1.38	3.22	3.15	3.05
표준편차	.56	.79	.84	.31	.59	.62	.59
왜도	-.29	-.69	-.21	1.26	-.34	-.33	-.11
첨도	.40	.15	-.43	1.22	.02	.10	.11

***p<.001.

2.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 분석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GM)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평가는 χ^2 검증뿐 아니라, 설명력과 간명성을 반영하는 CFI, TLI, RMSEA, SRMR 등의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김수영, 2016; Browne & Cudeck, 1992).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세 시점에 대해 평균 변화를 바탕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no-growth model)은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가정 하는 모형으로,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1.000, TLI=1.001, RMSEA=.000, SRMR=.006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 삶의 만족도 평균은 3.327(p<.001), 변화율의 평균은 -.088(p<.001)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 분산 .206(p<.001), 변화율 분산 .037(p<.001)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와 변화 속도 모두 다문화 청소년 간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초기치와 변화율 간 공분산은 -.028(p<.01)로 유의하였으며, 상관계수 또한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여(r = -.321, p<.001),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비교 (N=1,316)

구분	$x^2(df)$	CFI	TLI	RMSEA	SRMR
무변화모형	128.848(4)***	.856	.892	.154	.143
선형변화모형	.810(1)	1.000	1.001	.000	.006

***p<.001.

표 3
삶의 만족도 선형변화모형에 대한 추정치 (N=1,316)

구분	평균(SE)	분산(SE)	공분산	상관계수
초기치	3.227(.016)***	.206(.018)***	-.028 (.010)**	-.321***
변화률	-.088(.009)***	.037(.008)***		

**p<.01, ***p<.001.

3. 잠재성장 매개모형의 경로분석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독립변수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를 포함한 잠재성장 매개모형의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CFI=.994, TLI=.982, RMSEA=.033, SRMR=.032로 나타났다. CFI와 TLI는 .95 이상, RMSEA와 SRMR이 모두 .05 이하로 나타나 각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 = −.248, p<.05). 이러한 결과는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삶의 만족도 발달 궤적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졌으며(B = −.050, p<.01), 특히 친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25, p<.001). 반면, 교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 =-.009, p =.395).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B = −.184, p<.001), 변화율에는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B =.025, p =.418).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초기 삶의 만족도에는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발달 속도나 패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모두 초기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유의하였으며(B =.320, p<.001),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058, p<.001). 이는 초기에 가족지지가 높았던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후 삶의 만족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구지지 역시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217, p<.001),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055, p<.01). 초기 높은 수준의 또래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후 삶의 만족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사지지는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B =.078, p<.001),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 =-.022, p =.066). 이는 교사지지가 초기 만족도 형성에는 기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만족도 변화 패턴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잠재성장 매개모형의 경로 분석 (N=1,316)

구분	B	S.E.	*p*
가족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050	.015	**
친구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125	.013	***
교사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009	.011	.395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만족도 초기치	-.184	.044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만족도 변화율	.025	.030	.418
가족지지 → 삶의만족도 초기치	.320	.031	***
가족지지 → 삶의만족도 변화율	-.058	.025	***
친구지지 → 삶의만족도 초기치	.217	.020	***
친구지지 → 삶의만족도 변화율	-.055	.018	**
교사지지 → 삶의만족도 초기치	.078	.014	***
교사지지 → 삶의만족도 변화율	-.022	.012	.066

주.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통제하였음.
**p<.01, ***p<.001.

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2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며(B=.009, p<.01), 친구지지 역시 초기치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고 그 효과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B=.023, p<.001). 반면, 교사지지는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대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02, p=409). 한편,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가족지지(B= -.001, p=.447), 친구지지(B= -.003, p=.422), 교사지지(B=.000, p=.64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경로는 변화율에 대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삶의 만족도 초기치의 평균은 1.259(p<.001), 분산은 .106(p<.001)으로 나타나 초기 수준에 개인차가 유의하게 존재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은 .375(p<.001), 분산은 .045(p<.001)로, 시간 경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증가하며 변화율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기치와 변화율 간 공분산은 -.017(p<.05)로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여,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변화율은 완만한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을 높이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회적 지지 모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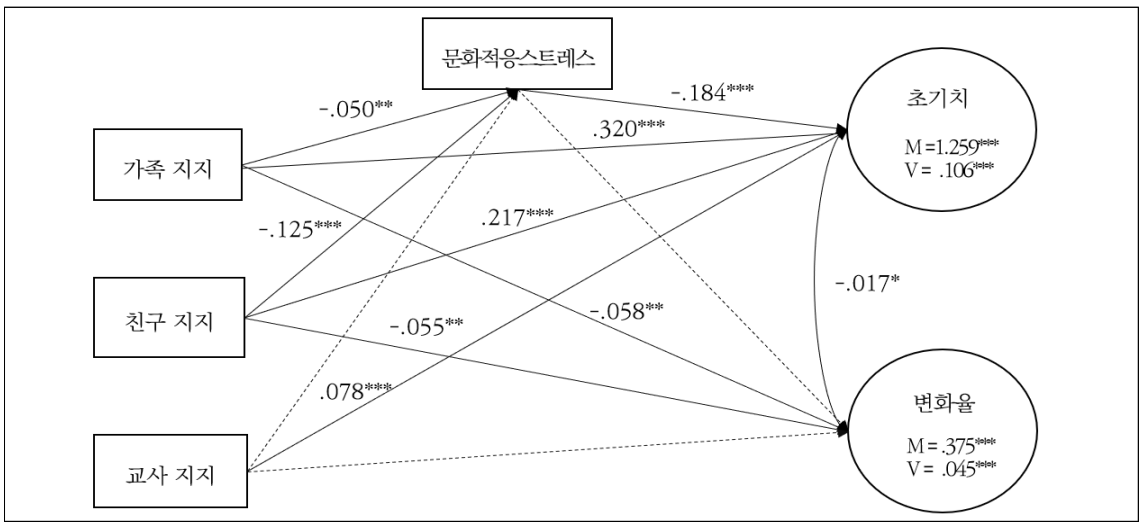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p<.01, ***p<.001.

표 5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N=1,316)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LLCI	ULCI
가족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초기치	.320***	.009**	.329***	.268	.390
가족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58**	-.001	-.059***	-.095	-.024
친구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초기치	.217***	.023**	.240***	.190	.291
친구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55***	-.003	-.058***	-.084	-.031
교사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초기치	.078***	.002	.079***	.041	.117
교사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22	.000	-.022	-.045	.002

**p<.01, ***p<.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 성장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적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평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외 종단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Goldbeck, Schmitz, Besier, Herschbach and Henrich(2007)은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 결과 역시,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이현철, 최성보, 2012; 김지혜, 2019). 이는 중학교 시기의 발달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는 호르몬 변화, 자아정체감 탐색,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또래관계 변화 등 발달적 과제가 집중되는 시기로, 심리적 변동성이 심화된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 감소는 다문화 청소년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발달적 특성에 더해 정체성 혼란과 문화적응이라는 이중적 부담이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소수자로서 더 큰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김효경, 서찬석, 2022; 유지희, 황숙연, 2016; 임소연, 박민희, 2014; Huebner, 1991). 본 연구와 동일한 다문화 청소년패널(MAPS) 데이터를 활용한 이진선, 오종철과 강영숙(2021)의 종단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감소하였으며, 우울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의 일반적 발달 특성과 더불어 문화적응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취약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이후 삶의 만족도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이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획일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처한 심리적·환경적 조건이나 지원 체계에 따라 그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자아탄력성(김민주, 윤기봉, 2018), 사회적 차별(고지원, 노지혜, 문성호, 2020),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연은모, 최효식, 2022) 등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기 적응 수준뿐만 아니라, 이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와 그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찰과 하고 이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그 출처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교사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의 정서적 지원이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주며, 특히 친구지지의 효과가 두드러진 것은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또래관계가 심리적 지지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Chu, Saucier & Hafner, 2010; Keles, Friborg, Idsøe, Sirin & Oppedal,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친구지지는 학교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반복 확인되고 있다(Kelly, Zilanawala, Booker & Sacker, 2018). 가족지지 역시 친구지지와 더불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뒷받침하는 핵심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수용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와 자아탄력성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이 확인되었다(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19). 또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의 지각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낮고,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효연, 2017).

한편,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교사의 직접적 정서지지보다는 학업 환경 조성이나 제도적 지원과 같은 간접적·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사지지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은 교사-학생 관계의 특성이나 학교 내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수준, 상호작용의 제약,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은 교사지지가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Shin과 Yang(2021)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수준이 낮은 경우, 학생들은 교사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지지의 효과가 단순한 지지 제공 여부보다는, 문화적 민감성과 정서적

포용성과 같은 질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중재에서는 단순한 접촉이나 관계의 양적 확대보다, 신뢰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의미 있는 교사-학생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지표보다는 학업 성취나 과제 몰입 등 교육적 측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가 정서적 지지보다는 학업 지도와 평가 중심의 기능적 관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Motti-Stefanidi & Asendorpf, 2012). 경험적 연구에서도 학교 내 성인과의 지지적 관계가 학업 몰입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irin et al., 2013). 비슷한 맥락에서 유지희와 황숙연(2016)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 달리 성적과 우울 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정서적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 일반 청소년과 달리, 학업 부담보다는 차별 경험, 문화적 소외, 가정환경 등 사회적·문화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지지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그 영향력이 발휘되는 적응 영역이 정서적 측면이 아닌 다른 영역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을 반영하는 관련 변인과 학업 성취, 자기조절, 학교 몰입 등 다양한 발달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 교사지지는 모두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 대해서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만이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자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과정을 완충하는 지속적 보호 요인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특히 친구지지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또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상호성, 인정, 정서적 교류는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들 역시 친구지지가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심리적 지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송현심, 성승연, 2015; Oberle, Schonert-Reichl & Thomson, 2010).

또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은, 청소년기라는 발달 시기에도 가족이 여전히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심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또래 지지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도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 정서적 안정, 회복탄력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승진, 도현심, 이운경, 박보경, 2016). 이는 청소년기에도 가족의 정서적 지지, 지각된 수용감, 안정된 애착 관계가 삶의 질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삶의 만족도 장기적 변화에 있어 가족과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가지는 누적적·지속적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주지만, 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속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및 친구지지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적 보호 요인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또래 관계가 삶의 만족도 유지에 보다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초기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스트레스 경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후의 변화 과정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Berry(2006)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이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초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다양한 보호 요인에 의해 조절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변화에는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관여하게 된다. 특히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 유지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민, 임영식, 2013; 최려나, 노충래, 2022). Kim, Hong and Grogan-Kaylor(2020) 역시 청소년기의 정서 조절 능력이 삶의 만족도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보호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 내적 특성을 포함한 다층적 매개 모형을 적용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통합적 설명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나, 교사지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과 친구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최근 국내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Kim과 Lee (2018)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경우, 친구지지가 문화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하며, 이는 삶의 만족도 및 전반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Rogers-Sirin, Ryce and Sirin(2014) 또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수용이 이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여 가족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교사지지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점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직접적 지지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제도적 지원이나 학업 환경

조성 등 간접적·구조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매개변인과는 별도의 경로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지지의 다양한 차원과 그 영향 경로를 보다 세분화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정책적으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에서 가족 및 친구지지망의 강화가 핵심임을 시사한다. 특히,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역할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성장에 있어 가족 및 친구지지의 중요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또래 지지 체계를 활성화하고 가족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향후 정책 및 실천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친구지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또래 기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협동활동 중심의 문화 이해 교육, 또래 멘토링, 소그룹 심리사회적 활동 등 또래 기반 중재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급 내 다문화·비다문화 학생을 혼합팀을 구성하고 문화 전시·발표 등의 협력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또래 관계 형성과 지지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이 빠른 선배 학생과 신규 다문화 학생을 1:1로 연결하는 선후배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초기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미술·음악·역할극과 같은 소그룹 심리사회적 활동은 정서 표현과 사회적 기술 향상을 지원하며, 또래 간 상호지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지지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적 소통 및 문화 갈등 조정 프로그램과 양육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정서적 요구를 수용하고, 양육·돌봄·의사소통·문제 해결 등 기능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및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사 및 통번역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교수자에서 정서적 지지자이자 문화적 중개자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직무연수 체계의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대상의 다문화 감수성 연수는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통합적 직무연수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배영주, 2024). 이에 따라 교사에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지 역량과 차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감수성 기반의 관계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임선일, 오영훈, 조인제, 이용민, 이은경, 2019). 따라서 현재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감수성 중심 연수를 전국 단위로 확대·정례화하여,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연수가 학교 차원의 개별 상담, 학급 공동체 활동, 학부모 연계 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연계될 때,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학업 적응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 친구, 교사지지 등 미시체계 수준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역사회 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요인 등 거시적 환경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는 지역사회 내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Verile, Ertl, Dillon & De La Rosa, 2019), 다양한 미디어 이용이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가족 내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Elias & Lemish, 2008).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지원, 미디어 환경 등 다층적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시간적 변화 양상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종단 자료와 다양한 측정 도구의 활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자료에 의존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 관찰, 부모 보고 등의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삼각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출처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단면적 연구에서 간과되기 쉬웠던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한 매개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고미숙 (2015).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대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중재학회지, 6**(1), 111-128.

고지원, 노지혜, 문성호 (2020).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28. doi:10.17854/ffyc.2020.04.62.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교육통계연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김담이 (2023).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와 성취동기의 관계. **현대사회와 다문화, 13**(4), 173-197. doi:10.35281/cms.2023.11.13.4.173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doi:10.21097/ksw.2018.02.13.1.373

김보경 (2017). **청소년의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김승진, 도현심, 이운경, 박보경 (2016).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이성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5), 83-100. doi:10.5723/kjcs.2016.37.5.83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 부분 측정지표 검증**(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5), 123-145.

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8,** 87-114. doi:10.24300/jkscw.2019.12.68.87

김주의 (202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Ⅰ**(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혜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115-124.

김진영, 이유진 (202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55-67. doi:10.22251/jlcci.2022.22.1.55

김평화, 윤혜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25-53. doi:10.21509/KJYS.2020.01.27.01.25

김효경, 서찬석 (2022). 집단괴롭힘 경험이 다문화 배경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3), 437-458. doi:10.22418/JSS.2022.12.61.3.437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다문화교육포털 (2023). **이주배경(다문화)학생 유형 및 통계.** https://www.edu4mc.or.kr/guide/typeStat.html에서 2025년 6월 4일 인출

법제처 (2020).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일부개정 2020.5.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8017&ancYd=20200519&ancNo=17281&efYd=202005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5년 8월 26일 인출

배병렬 (2024). **Mplus 8.3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배영주 (2024).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의 한계와 전망. **현대사회와다문화, 14**(4), 69-95. doi:10.35281/cms.2024.11.14.4.69

손신영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건강학회지, 13**(2), 1-13. doi:10.33502/JKSMH.13.2.001

송현심, 성승연 (201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29-157.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은모, 최효식 (2022).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39-53. doi:10.22251/jlcci.2022.22.10.39

유경훈 (2013).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00-2706. doi:10.5762/KAIS.2013.14.6.2700

유지희, 황숙연 (2016).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3**(1), 115-146.

이기수, 원성준 (2023). 다문화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9**(3), 401-424. doi:10.24159/joec.2023.29.3.401

이기숙, 박소영 (2000).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의 관련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9), 93-106.

이연숙, 박종효 (2021).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또래 및 교사 애착의 매개효과와 초·중·고등학생의 집단 차이. **교육심리연구, 35**(1), 75-96. doi:10.17286/KJEP.2021.35.1.04

이응택 (2025).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적응의 관계: 일시 피해와 지속 피해 비교. **청소년 문화포럼, 82,** 171-196. doi:10.17854/ffyc.2025.04.82.171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243-261. doi:10.15709/hswr.2021.41.4.243

이현철, 최성보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종단 분석: 2003년(중 2)에서 2007년(고 3)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1**(2), 159-187.

인효연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459-482. doi:10.21509/KJYS.2017.10.24.10.459

임선일, 오영훈, 조인제, 이용민, 이은경 (2019). 초·중등학교 다문화감수성교육의 한계와 다양화 방안 모색. **문화교류연구, 8**(1), 173-202. doi:10.30974/kaice.2019.8.1.173

임소연, 박민희 (2014).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41-1651.

장선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사회적 지지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1), 662-673. doi:10.5392/JKCA.2021.21.01.662

정재경, 강민주 (2019).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및 친구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57**(4), 485-498. doi:10.6115/fer.2019.036

최려나, 노충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3**(4), 59-87. doi:10.14816/sky.2022.33.4.59

통계청 (2024).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 대전광역시: 통계청.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231-257. doi:10.24301/MHSW.2019.03.47.1.231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서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doi:10.1111/j.1464-0597.1997.tb01087.x

Berry, J. W. (2006). Acculturative stress. In P. T. P. Wong & L. C. J. Wong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pp. 287-298). Boston, MA:Springer. doi:10.1007/0-387-26238-5_12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wood Press.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Choi, Y., He, M., & Harachi, T. W. (2008). Intergenerational Cultural Dissonance, Parent-Child Conflict and Bonding,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mong Vietnamese and Cambodi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1), 85-96. doi:10.1007/s10964-007-9217-z

Chu, P. S., Saucier, D. A., & Hafner, E. (2010).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6), 624-645. doi:10.1521/jscp.2010.29.6.624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doi:10.1097/00006842-197609000-00003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doi:10.1037/0033-2909.98.2.310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doi:10.1086/228943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10.1207/s15327752jpa4901_13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doi:10.1207/s15374424jccp1801_7

Elias, N., & Lemish, D. (2008). Media Uses in Immigrant Families: Torn between "Inward" and "Outward" Paths of Integrat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0*(1), 21-40. doi:0.1177/1748048507084576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Goldbeck, L., Schmitz, T. G., Besier, T., Herschbach, P., & Henrich, G. (2007). Life satisfaction decreases during adolescence. *Quality of Life Research*, *16*, 969-979. doi:10.1007/s11136-007-9205-5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doi:10.1097/00004583-199609000-00016

Huebner, E. S. (1991).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3), 231-240. doi:10.1177/0143034391123010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33. doi:10.1023/B:SOCI.0000007497.57754.e3

Joyce, L., & Liamputtong, P. (2017).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for young refugees in regional area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7*, 18-26. doi:10.1016/j.childyouth.2017.03.016

Kawachi, I. (2006). Commentary: Social capital and health: Making the connections one step at a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989-993. doi:10.1093/ije/dyl117

Keles, S., Friborg, O., Idsøe, T., Sirin, S., & Oppedal, B. (2018). Resilience and acculturation among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2*(1), 52-63. doi:10.1177/016502541665813

Kelly, Y., Zilanawala, A., Booker, C., & Sacker, A. (2018). Social media use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Findings from the UK Millennium Cohort Study. *EClinicalMedicine, 6,* 59-68. doi:10.1016/j.eclinm.2018.12.005.

Kim, H., & Lee, J. (2018).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2*, 102-115.

Kim, J., Hong, J. S., & Grogan-Kaylor, A. (2020). Emotion regulati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80*, 1-12.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Lucas, R. E., & Donnellan, M. B. (2007). How stable is happiness? Using the STARTS model to estimate the stabi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5), 1091-1098. doi:10.1016/j.jrp.2006.11.005

Motti-Stefanidi, F., & Asendorpf, J. B. (2012). The adaptation and well-being of adolescent immigrants in Greek schools: A multilevel, longitudinal study of risks and resour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2), 451-473. doi:10.1017/S0954579412000090

Oberle, E., Schonert-Reichl, K. A., & Thomson, K. C. (2010).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and peer relations in early adolescence: Gender-specific predictors of peer accept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1330-1342. doi:10.1007/s10964-009-9486-9

Otto, C., Reiss, F., Voss, C., Wüstner, A., Meyrose, A. K., Hölling, H., & Ravens-Sieberer, U. (2021). Mental health and well-being from childhood to adulthood: Design, methods and results of the 11-year follow-up of the BELLA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10), 1559-1577. doi:10.1007/s00787-020-01630-4.

Ozbay, F., Johnson, D. C., Dimoulas, E., Morgan III, C. A., Charney, D., & Southwick, S. (2007).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to stress: From neurobiology to clinical practice. *Psychiatry(Edgmont)*, *4*(5), 35.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7-356. doi:10.2307/2136676

Proctor, C., Linley, P. A., & Maltby, J. (2011). Life Satisfaction. In Levesque, R.J.R.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ew York: Springer. doi:10.1007/978-1-4419-1695-2_125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Books/Simon & Schuster.

Raymond-Flesch, M., Auerswald, C., McGlone, L., Comfort, M., & Minnis, A. (2017). Building social capital to promote adolescent wellbeing: A qualitative study with teens in a Latino agricultural community. *BMC Public Health*, *17*(1), 177. doi:10.1186/s12889-017-4110-5

Rogers-Sirin, L., Ryce, P., & Sirin, S. R. (2014).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cultural mismatch and their influences on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well-being. In R. Dimitrova, M. Bender, & F. J. R. van de Vijver (Eds.), *Global Perspectives on Well-Being in Immigrant Families* (pp. 11-30). New York: Springer. doi:10.1007/978-1-4614-9129-3_2

Shin, H., & Yang, Y. (2021). Teacher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student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3*, 1-13.

Sirin, S. R., Ryce, P., Gupta, T., & Rogers-Sirin, L. (2013). The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ental health symptoms for immigrant adolesc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4), 736-748. doi:10.1037/a0028398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doi:10.1146/annurev.psych.52.1.83

Suldo, S. M., &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105. doi: 10.1521/scpq.19.2.93.33313

Sung, J. H., Lee, J. E., & Lee, J. Y. (2018).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ducing Acculturative Stress-Related to Discrimination between Latin and Asian Immigrants: Results from National Latino and Asian American Study (NLAAS). *Journal of Advances in Medicine and Medical Research*, *27*(4), JAMMR.42728. doi:10.9734/JAMMR/2018/42728

Thoits, P. A. (2011). Mechanisms linking social ties and suppor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2*(2), 145-161. doi:10.1177/0022146510395592

Tineo, P., Bixter, M. T., Polanco-Roman, L., Grapin, S. L., Taveras, L., & Reyes-Portillo, J. (2024).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internalizing problems among racially and ethnically minoritized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e U.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357,* 1-16. doi:10.1016/j.socscimed.2024.11719210.1016/j.socscimed.2024.

Verile, M. G., Ertl, M. M., Dillon, F. R., & De La Rosa, M. (2019). Acculturative stress among Latina young adult immigrants: The mediating role of receiving community context.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5*(1), 91-110. doi:10.1037/tps0000185

Wang, M. T., & Eccles, J. S. (2012). Social support matters: Longitudi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ree dimensions of school engagement from middle to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83*(3), 877-895. doi:10.1111/j.1467-8624.2012.01745.x

Yoon, E., Lee, R. M., & Goh, M. (2008). Acculturation, social connected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3), 246-255. doi:10.1037/1099-9809.14.3.246

ABSTRACT

Associ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Kim, Jihyoung* · Yun, Hyunjeong**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ested the mediating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in these relationships. Data were drawn from the first cohort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using three waves collected from 2014 (Grade 7) to 2016 (Grade 9). The final sample included 1,316 adolescents (648 boys and 668 girls). Latent growth modeling and med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and Mplus 8.3. Social support was categorized into family, peer, and teacher support. The results revealed that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declined over time, with individual differences in both initial levels and rates of change. In addition, family and peer support significantly reduced acculturative stress, which, in turn,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the initial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role of family and peer support in promoting life satisfac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alleviating acculturative stress. By identifying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empirically revealing longitudinal mediational mechanisms,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ne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how life satisfaction changes over tim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positive family communication and supportive peer relationships may be essential for enhancing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these findings offer practical insights for designing targeted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family support, peer support, teacher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life satisfaction, latent growth modeling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 of Child Welfare, First author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 of Child Welfare, Corresponding author